

## 입재 정종로 문학의 공간 감성과 그 구성 방식

정 우 락\*

- I. 머리말
- II. 정종로 문학에 나타난 공간
- III. 정종로 문학의 공간 감성
- IV. 정종로의 공간 구성 방식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입재 정종로의 시 가운데 등장하는 공간을 포착하여, 그가 이들 공간을 어떻게 작품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 공간에 대한 감성과 구성 방식이 어떻게 織造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어떤 작가가 공간을 넘나들며 문학을 창작한다고 볼 때, 공간 상상력은 문학탐구의 본령에 해당한다. 정종로는 주로 자신이 거주하는 愚山을 중심으로 한 상주 지역을 주로 작품화하는데, 본 논의는 이것을 대상으로 한다.

정종로의 공간 감성은 도학, 낭만, 생활, 사회 감성이 작동하면서 매우 다채로운 형상화 과정을 거친다. 이 네 가지 유형의 감성 가운데 낭만 감성에 의한 작품이 현저하게 많고, 사회 감성에 의한 작품은 드물게

---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jwl0412@knu.ac.kr

나타난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그가 보인 일정한 한계이기도 하지만, 정종로가 성리학자 혹은 작가로서의 존재감을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정종로 문학에서 공간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감성과 구성 방식을 따져 보면, 陰陽論과 道統論이 깊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낭만 감성과 생활 감성을 중심으로, 靜과 動이 맞물리고, 點과 線이 어울리면서 문학공간은 직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종로가 도학뿐만 아니라 문학을 특별히 강조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양론이 문학에, 도통론이 도학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 역시 그가 도학과 문학을 일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 주제어

임재 정종로, 공간감성, 도학감성, 낭만감성, 사회감성, 생활감성, 구성방식, 음양론, 도통론, 점과 선

## I. 머리말

立齋 鄭宗魯(1738-1816)는 서애학파의 적전으로 重道輕文의 재도주의적 입장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重道不輕文의 관도주의적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른 바 언어와 문장은 도덕의 꽃에 지나지 않는다. 도덕이 안에서 채워지면 꽃은 진실로 밖으로 발현된다. 이 두 가지는 또한 본질과 말단의 경중이 있다. 근본이면서 중한 것이 이미 있다면, 말이면서 가벼운 것이 비록 없더라도 또한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sup>1)</sup>라고 한 데서 문학에 대한 정종로의 기본입장을 바로 알 수 있다. 성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 우리는 그 근원을 심학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자료를 보자.

延平 李先生이 사람을 가르칠 때 ‘대체로 고요한 가운데에 대본을 체인하여 미발 기상을 분명하게 하면 일을 처리하고 사물에 응함에 자연히 절도에 맞는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龜山의 문하에서 서로 전해 온 지결이다. 그러나 당시 직접 수학할 때에 강론 듣기를 탐하고 또한 章句와 訓詁 익히기를 좋아하여 여기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다. 지금에는 있는 듯 없는 듯하여 한 가지도 적실히 본 곳이 없어서 스승의 교육하신 뜻을 저버리니, 언제나 이것을 한 번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 땀이 흘러서 옷을 적시지 않은 것이 없었다.<sup>2)</sup>

이는 『心經附註』에 실린 것으로 주자가 何鎬(臺溪, 1128-1175)에게 답한 것의 일부이다. 여기서 보듯이 주자는 章句와 訓詁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장구는 화려한 수사를 동반한 글쓰기의 능력을 말하고, 훈고는 역사서 등과 관련한 사전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강론을 들으

- 
- 1) 鄭宗魯, 『立齋集』 권26, <鄭新堂先生實紀序>, “所謂言語文章者, 不過道德之英華也. 道德充盛於內, 則英華固發見於外, 而斯二者亦有本末輕重之分, 本而重者既存, 則末而輕者雖無, 亦何傷乎?”
  - 2) 程敏政, 『心經附註』 권1, “朱子答何叔京書曰, 李先生教人, 大抵令於靜中, 體認大本, 未發時氣象, 分明, 卽處事應物, 自然中節, 乃龜山門下相傳旨訣. 然, 當時親炙之時, 貪聽講論, 又方竊好章句訓詁之習, 不得盡心於此. 至今, 若存若亡, 無一的實見處, 辜負教育之意, 每一念此, 未嘗不愧汗沾衣也.”

며 이를 익히는 것은 인간의 심성을 기반으로 한 大本을 體認하고 未發의 氣像을 분명히 하는 涵養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장구와 훈고는 문학에, 함양은 도학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후자가 본이라면 전자는 말단에 다름이 아니다. 즉 주자는 문학에 대한 재도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인데, 정종로의 생각 역시 기본적으로 이와 같았다.

學臻明辨自成文	학문이 명변에 이르면 저절로 글이 되니
黼黻皇猷卽此存	임금의 계책을 도와 빛냄도 여기에 있네
多少絺章與繡句	많은 아름다운 문장과 고운 시구를
古人云是類俳言	고인은 광대의 말과 같다고 말하였네 <sup>3)</sup>

黃麟老(雨坪子, 1785-1830)가 일찍이 눈을 읊은 오언배울 사십육운을 지어 정종로에게 보여주자, 그는 여기에서 문장을 짓는 일은 餘事라고 하면서 16수의 시를 짓는다. 위의 작품은 이 가운데 네 번째 수이다. 여기서 그는 『近思錄』의 말을 인용하며 아름다운 문장과 고운 시구는 광대의 말과 같다고 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명변에 이르는 공부라는 것이다. 정종로는 이러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같은 작품에서, “하나의 敬이 본래 만사의 근원이니, 분발하여 성인과 현인이 되기를 기약해야 하네. 머뭇거리며 기다리면 끝내 무슨 이익이 되랴, 단연코 지금부터 용맹정진하게나.”<sup>4)</sup>라고 할 수 있었다.

재도주의가 문장해도론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종로는 도본문말론을 문학창작에 철저하게 적용시키지는 않았다. 즉 문학과 도학을 오히려 함께 강조하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이는 문학과 도학의

3) 鄭宗魯, 『立齋集』 권5, <黃文吉麟老, 詠雪得五排四十六韻來示, 余謂文章亦餘事, 遂以向上事勉, 作七絕若干首.>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입재집』(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을 참고한다.

4) 鄭宗魯, 『立齋集』 권5, <黃文吉麟老, 詠雪得五排四十六韻來示, 余謂文章亦餘事, 遂以向上事勉, 作七絕若干首.>, “一敬元來萬事根。學成終始摠茲源。整來外面勤提掇。然後靈臺皦若皦。”

상수적 관계를 인정하면서, 도는 문학을 통해 실현되고, 문학은 도를 통해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즉 정종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문학에 대한 재도주의적 입장을 취하지만, 그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문일치를 강조한다. 『입재집』은 목록 상하 2권 1책, 원집 48권 24책, 별집 9권 4책, 연보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도합 61권 30책이다. 사정의 이리함을 고려할 때 그는 오히려 문학을 통해 도학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자료를 보자.

- ① 부군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다. “문장과 도학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아니다. 학문을 해서 공부가 박학, 심문, 신사, 명변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치가 순조롭고 문사가 통달한 문장이 기약하지 않아도 찬연히 이루어진다.”<sup>5)</sup>
- ② 견일암에 올라가 사마천의 『사기』를 읽었다. <백이전>, <임안서>, <유협>, <화식>, <혹리>, <사군> 등 여러 열전을 베껴 혹 만 번 천 번까지 읽었다.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서 팔대가문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마음을 집중하여 한 번 읽고는 곧 책을 덮고 암송하여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 전질을 다 읽고 돌려주니, 그 주인이 이를 듣고 크게 놀라워하였다.<sup>6)</sup>

위의 자료 ①에서 보듯이 정종로는 스스로 ‘문장과 도학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문일치의 사상을 지니기도 했다.<sup>7)</sup> 즉, 박학과 심문 등의 학문이 넉넉해지면 ‘理順辭達’의 문장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②에서는 역사서 『史記』와 문학서 당송팔대가문을 열심히 읽었다고 했다. 이는 주자가 章句와 訓詁를 익히기

5) 鄭宗魯, 『立齋別集』 권9, “府君嘗曰, 文章道學, 本無二致, 爲學而工夫到博學審問愼思明辨之境, 則理順辭達之文, 不期而成章矣.”

6) 『立齋集』 「年譜」 22세조, “上見日菴, 讀馬史, 抄伯夷傳·任安書·游俠·貨殖·酷吏·四君諸傳, 或讀至萬千. 嘗借人八大家文, 潛心一覽, 卽掩卷誦, 不錯一字, 未幾盡帙而還之, 其主聞之大驚焉.”

7) 도문일치의 문학사상은 18세기의 趙龜命과 俞漢雋 등에 의해 도학과 문학이 보다 자유롭게 이해되면서 문학의 독자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경남, 「16, 17세기 程朱學의 道文一致論의 균열과 道文分離의 經緯」,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화회, 2009 참조.

위해 노력했던 지난날의 반성과는 오히려 배치되는 것이다. 고문론가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도학 못지않게 문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청년기 정종로의 문장수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본고는 도학과 문학 사이에서 정종로를 논의하되 문학에 더욱 밀착시키기로 한다. 현재 정종로의 『입재집』 해제를 비롯하여<sup>8)</sup> 그의 문학인식과 대체적인 문학 경향이 다루어졌고,<sup>9)</sup> 류진희에 의해 그의 한시를 중심으로 한 박사논문까지 제출된 상태이다.<sup>10)</sup> 류진희는 이 논문에서 ‘도학적 이념의 형상화’, ‘탈속적 흥취와 출처의식’, ‘유한적 심상과 기행선취’, ‘인간적 정화의 토로’가 정종로 시의 내용이라 하였고, 나아가 창작상의 특징과 시체 상의 특징 등을 두루 논의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예상되는 조선조 선비문학의 경향을 정종로를 통해 거듭 확인하게 된다.

정종로의 시는 도합 1249수로 파악된다. 이 규모는 정종로가 도학자이지만, 그의 작가적 성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종로 시의 대체적인 성향은 이미 논의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정종로의 시 가운데 나타나는 공간을 특별히 포착하여, 그가 이들 공간을 어떻게 작품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 공간에 대한 감성과 구성 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어떤 작가가 공간을 넘나들며 문학을 창작한다고 볼 때, 공간 상상력은 문학탐구의 본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8) 황위주, 『『입재집(立齋集)』에 대하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입재집』 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9) 朴英鎬, 「立齋 鄭宗魯의 삶과 文學世界」,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 ; 이향배, 「立齋 鄭宗魯의 한시 연구」, 『퇴계학과유교문화』 50,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2 ; 류진희, 「입재 정종로의 陶·杜와 주자시 수용양상」, 『연민학지』 28, 연민학회, 2017.

10) 류진희, 「입재 정종로의 한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논문, 2017.

## II. 정종로 문학에 나타난 공간

인간은 일정한 시간 속에서 다양한 공간을 거느리며 산다. 시간을 고정시키고 인간이 어떠한 공간을 넘나드는가 하는 문제를 따질 수도 있고, 공간을 고정시키고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오르내리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따질 수도 있다. 전자의 방식이 문학지리학이라면 후자의 방식은 문학사학이다. 이 가운데 문학지리학은 공간 감성으로 나타나는 바, 특정 사물 혹은 지역에 대한 상상력에 기반한다. 이를 우리는 물질적 상상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 상상력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간 감성은 지역학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정종로의 시문학에는 수많은 공간이 나타난다. 劔湖나 見日庵 등 구체적인 장소로 나타나 있는 곳도 있지만, 京城이나 達城 등 막연한 공간을 가리키기도 하고, 山家나 寓舍 등 자신이 사는 곳을 지칭하는 곳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제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것도 있어 일괄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공간을 따져보는 것은 그가 주로 어떤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그 지역과 연관된 공간 상상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점을 바로 알 수 있어 주목된다. 우선 시제에 등장하는 공간만을 조사해 제시하기로 한다.

순번	공간	시제	작품수	소재지
1	簡臨齋	<簡臨齋偶題>	1	경북 상주시 함창읍
2	劔湖	<劔湖泛舟湖上送姜德祖鳳欽>, <劔湖卽景>(2)	3	경북 상주시 공검면
3	見日庵	<見日庵口占>, <與諸老遊見日庵共賦>(2)	3	경북 상주시 외서면 도솔산
4	京城	<入京宿城內>	1	서울

5	溪亭, 水回洞, 對山樓, 愚山, 道存堂(愚山西院), 愚巖	<p>〈溪亭月夜賞梅〉,          〈道存堂講罷與諸益遊水回洞〉,          〈與晚覺遊水回洞有詩因次〉,          〈山樓小會拈韻共賦〉,          〈山樓小會示諸君〉(2),          〈敬次先祖愚山二十景韻〉(20),          〈二十景外又有爛柯巖倚筇巖插花巖等亦皆當日命名者故雖無題詠傳後而聊賦其景以附之〉(3),          〈道存堂成各賦七律以詠歌其事而猶恨句少韻窄有未盡說者故更拈杜草堂五排十四韻以賦〉,          〈盧子能啓心至滯雨山樓共賦愚巖〉</p>	30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6	高山	<p>〈敬次高山雜詠〉(9), 〈十六絕〉(16),          〈七曲詩〉(7)</p>	22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7	觀漁臺	<p>〈上觀漁臺臨大海步前韻〉,          〈又用前韻效遊仙體〉,          〈是日宿海上欲觀日出海上人皆言日出時常爲雲霧蔽隔非留連之久不可得見故悵然有作〉, 〈用前韻賦途中卽事〉</p>	4	경북 영덕군 영해면 상대산
8	九阜社	〈謹次九阜社登西樓韻〉	1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	龜湖	<p>〈到龜湖見申子長又用南字韻吟贈〉(2),          〈龜湖贈申子長〉</p>	3	경북 의성군 봉양면 귀미리
10	近岳書院	<p>〈岳院奉別趙靜窩丈錫喆〉,          〈李仲章氏聞余在岳院委來相見遂與共次前韻以道驩喜之意〉,          〈次前韻示同志諸公〉,          〈次贈近巖諸老〉(2)</p>	5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1	達城	〈達城鄉飲禮後賦其事奉贈尹方伯光顏〉	1	대구시
12	道南書院	<p>〈道院設講會洞主林下翁要我秉拂將往吟得〉(2), 〈道院次韋蘇州韻志感〉</p>	3	경북 상주시 도남동
13	陶山	<p>〈敬次陶山雜詠〉(18),          〈二十六絕〉(26)</p>	44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14	東巖亭	〈次柳公長源東巖亭二十景韻〉	20	경북 안동시 수곡리



입재 정종로 문학의 공간 감성과 그 구성 방식(정우락)

15	同源亭	<次柳氏同源亭韻>	1	경북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16	魯東書堂	<次魯東旌閭韻>	2	경북 상주시 한산 기슭
17	龔淵精舍	<龔淵精舍次諸同人韻>, <將出龔淵洞詠懷作一絕>	2	대구시 동구 용수동
18	弄清臺	<望弄清臺有感>	1	경북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19	龍遊洞	<龍遊洞石形之詭怪南宗伯以爲非龍遊所致乃造化自然作辨破詩累十句以示我其言固不爲無見而余意天地間物理無所不有亦難以一槩論故反其意又作此詩奉寄>	1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20	龍泉精舍	<敬次桐溪鄭先生龍泉精舍重建韻>	1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산동
21	六宜亭	<遊南氏六宜亭次元韻>	1	경북 상주시 함창읍
22	林千石臺	<林千石臺>	1	경북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23	武夷	<武夷贈李仲章>	1	경북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24	武夷九曲	<敬次武夷權歌>(10)	10	중국 복건성 송안현 무이산
25	武夷精舍	<敬次武夷精舍雜詠韻>(12)	12	중국 복건성 송안현 무이산
26	般若寺	<宿般若寺>	1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록
27	白雲臺	<白雲臺次柳敬甫栳韻>	1	미상
28	鳳村	<鳳村卽事>	1	미상
29	社倉書堂	<社倉八景>(8)	8	경북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30	沙村	<沙村次金苟齋直甫宗敬韻>, <沙村逢李致道垵用秋字吟贈>, <用前韻呈金川沙>, <沙村書堂邂逅李后山宗洙用南字韻吟呈>	4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

31	仙遊洞	<p>〈余聞聞喜山水多絶勝欲一遊賞久矣甲寅清和友人南宗伯邀我共遊其別庄仙遊洞振袂入杜陵聯鑣作行宗伯之弟朝伯余之季兒象觀偕焉自陽山歷内外仙洞及巴串龍遊諸勝只得若干首方欲追賦其景物而恨無起余者適會文瑞來到遂與共賦〉(16),</p> <p>〈仙遊洞卽景次雲谷第二絶韻〉(2),</p> <p>〈又疊〉, 〈仙遊洞 次宗伯韻〉,</p> <p>〈與杜陵諸益更入聞喜共賞曦陽仙洞諸勝吟得二絶〉(2)</p>	22	경북 문경시 가은읍 양산천
32	城山	〈城山八景眠雲翁所居〉	8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33	城山山城	〈山城次南友韻〉	1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서리
34	素履亭	<p>〈素履亭次軸中韻〉,</p> <p>〈謹次素履亭韻亭卽姜啓好先亭〉(2),</p> <p>〈素履亭八景〉(8)</p>	11	경북 상주군 공성면 거창리
35	俗離山	<p>〈望俗離次宗伯韻〉(2),</p> <p>〈詠俗離次前竊字〉, 〈五層殿〉,</p> <p>〈銅柱〉, 〈鐵鑊〉, 〈石槽〉, 〈水晶峯〉,</p> <p>〈龜形巖〉, 〈石門〉, 〈天王峯〉,</p> <p>〈福泉寺〉, 〈中獅庵聯句〉,</p> <p>〈文藏臺〉(2), 〈金剛窟〉(2)</p>	17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및 괴산군, 경북 상주시 화북면
36	漁軒	〈到漁軒見趙士悅錫獻又用秋字吟贈〉	1	경북 상주시 현신동
37	玉洞(玉洞書院)	<p>〈玉洞歌〉, 〈玉洞題詠〉(19),</p> <p>〈玉洞秋夜 次同人韻〉(2)</p>	22	경북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38	浣溪西院	〈丹城浣溪書院卽權東溪脰享之所而祠與堂齋門樓之號東溪之孫褰皆要余命之故聊此吟贈〉(6)	6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39	雲谷	<p>敬次雲谷雜詩(12),</p> <p>〈敬次雲谷二十六詠〉</p>	38	중국 복건성 건양현 여산
40	雲山	雲山途中	1	미상
41	雲仙九曲	<p>次雲巖吳侍郎 大益 寄贈韻</p> <p>並步其九曲十絶奉呈(11)</p>	11	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42	月麓書堂	<次月麓書堂韻>(7)	7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43	泣嶺	<滯雨逆旅翌朝上泣嶺有作>	1	경북 영덕군 영해부
44	義林池	<義林池次簡易韻>	1	충북 제천시 모산동
45	注谷	<注谷次趙聖紹氏暨其仲氏七律五絕見贈韻>	2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46	竹下潭	<偶臨竹下潭賦卽景>	1	경북 예천군 용궁
47	芝巖齋	<次李能養克培芝巖齋韻>	1	경북 상주시 청리면
48	淸溪洞	<暮泊淸溪洞口>, <淸溪寺步南友韻>	2	경북 상주시 화서면 하송리
49	靑巖亭	次靑巖亭重修韻	1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
계			342	

정종로는 아버지 鄭仁模(1707-1756)와 어머니 岳林洪氏 사이의 장남으로 외가인 상주 함창현 栗里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4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외조모 이씨 슬하에서 8세까지 자라다가 9세(1746) 때 본가가 있는 우산으로 돌아왔다.<sup>11)</sup> 외가에서는 외종조부에게 수학하였으며, 본가에서는 조부 鄭靑源(1686-1756)과 중부 鄭義模(滄洲, 1709-1756) 등에게 수학하였다. 청년기에는 문장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으나, 30세를 전후하여 깨달은 바 있어 위기지학에 몰두한다. 특히 26세 때 黃啓熙(1727-1785)와의 만남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sup>12)</sup> 立齋와 無適翁이라는 자호에 그의 학문지향이 잘 나타나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3)</sup>

11) 정종로는 42세에 북계(北溪, 현재의 공검면 부곡리)로 거처를 옮겼다가, 약 두 달 만에 다시 우복의 산소 근처인 함창 검호(檢湖) 옆으로 옮겼다. 이곳에서 2년쯤 거주하다가 43세 되던 겨울에 다시 愚山으로 돌아왔다.

12) 황계희는 정종로에게 문장은 잔재주라고 하면서 정경세 이래의 가학이 참 공부라 했다. 이에 대하여 정종로는, “내가 이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실로 審幾堂公으로부터 계발되었다.”라고 했다. 『立齋年譜』 26세조 참조.

40세부터 지역의 명망 있는 사람들과 교유하기 시작하는데, 예천 용문의 朴孫慶(南野, 1713-1782), 안동 소호의 李象靖(大山, 1711-1781), 대구 옷골의 崔興遠(百弗菴, 1705-1786) 등 소위 영남삼로가 바로 그들이다. 52세(1789)에 光陵參奉, 56세(1796)에 司圃署別提, 57세(1797)에 康寧縣監과 咸昌縣監에 제수되었으며,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사헌부지평과 장령 등의 직함이 내려오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서울 등 다양한 곳을 여행한다. 위의 자료에 근거해 보면, 상주(16개소), 문경(3개소), 안동(3개소) 등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거창, 산청 등의 경남지역, 영동과 제천 등 충청지역 등<sup>14)</sup>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제에 일정한 공간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가 직접 간 것은 물론 아니다. 주자를 존모하여 중국의 武夷山 공간을 작품화하거나,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요청에 의해 공간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성주에 소재한 사창서당 주위를 읊은 <社倉八景>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이 시의 서문에서, “하루는 선생의 후손 鄭堞이 나에게 편지를 부쳐서 그 일을 갖추어, ‘이곳에 집사의 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sup>15)</sup>라고 하며 시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는 대부분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상주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十世五遷居	십 세 동안 다섯 번 옮겨 살며
不出此商州	여기 상주를 벗어나지 않았네
覽物無生面	보이는 사물은 낯선 것이 없고
逢人盡舊遊	만나는 사람은 다 오랜 벗들이네
所息取容膝	쉴 곳은 작은 오두막을 취하니

13)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14) 49곳의 구체적 장소를 지역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북지역 33개소(상주 16, 안동 3, 문경 3, 영덕 2, 영양 2, 의성 2, 예천 2, 성주 1, 봉화 1, 영주 1), 대구지역 2개소, 경남지역 3개소(합천 1, 거창 1, 산청 1). 충청지역 4개소(보은 1, 영동 1, 단양 1, 제천 1), 서울지역: 1개소, 기타지역 6개소(중국 3, 미상 3)

15) 鄭宗魯, 『立齋集』 권4, <社倉八景>, “先生之孫堞復汝, 寄書於我, 備言其事曰, 此間不可無執事一句.”

水舍狹於舟	물가의 집은 배보다도 좁구나
鑾室任小奚	부엌일을 어린 종에게 맡기니
逐日樵故丘	날마다 옛 언덕에서 땔나무하네
飢采碧山薇	배고프면 푸른 산 고사리 캐 먹고
渴飲清溪流	목마르면 맑은 시냇물을 마시네
傳家自有業	집안에 전해 오는 일이 본래 있으니
榮樂非吾求	영화와 즐거움은 내 구하는 바 아니네 <sup>16)</sup>

정종로의 <복거> 4수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이다. 그는 여기서 10대조 鄭蕃에서 자신의 대에 이르기까지 다섯 번을 옮겨 살았으나 상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sup>17)</sup> 이 때문에 사물은 낯선 것이 없고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오랜 벗들이라고 했다. 세 번째 작품에서는, “우리 선조 만년에 물러나 은거해, 우산 시내 사이에 터 잡아 집 지었네. 물이 흐르는 바위 산골은 오래되었고, 경계가 후미져서 세월이 한가로웠네.”<sup>18)</sup>라고 하면서, 6대조 정경세가 우산에 자리를 잡았고, 그 자신 역시 “아, 내가 여기에 집터를 정함은, 산서에 조금도 미혹되지 않았다네.”<sup>19)</sup>라고 하면서, 우산이 은거해서 사는 데 있어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다.

우산의 산수를 특별히 사랑했으므로 위의 표에서 보듯이 그는 溪亭, 水回洞, 對山樓, 愚山, 道存堂(愚山西院), 愚巖을 중심으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정경세의 우산20경에 대해서는 낱낱이 차운을 하였다. <敬次先祖愚山二十景韻>이라는 20수가 그것이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정경세가 당시에 명명한 爛柯巖, 倚筇巖, 插花巖 등에 대해서도 특별히 작품을 남겼다. <이십경 외에 또 난가암·의공암·삼화암 등이 있으니 역시 모두 당일에 명명한 것이다. 그래서 비록 표제하고 읊어 후대에 전함은 없었으나 애오라지 그 광경을 읊어서 부기한다><sup>20)</sup>라는 작품이 그것이다.

16) 鄭宗魯, 『立齋集』 권1, <卜居四首>

17) 정경세 종가의 계보와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정우락, 『영남을 넘어,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예문서원, 2013, 108-152쪽에 자세하다.

18) 鄭宗魯, 『立齋集』 권1, <卜居四首>, “吾祖晚退遯, 卜築愚溪間. 水流巖峽古, 境僻日月閒.”

19) 鄭宗魯, 『立齋集』 권1, <卜居四首>, “嗟余卜茲宅, 不是惑山書.”

이처럼 정종로는 우산을 중심으로, 함창의 간임재, 공검의 검호, 외서의 견일암, 은척의 동원정, 화북의 용유동과 성산, 함창의 옥의정, 모동의 임천석대, 공성의 소리정, 헌신의 어헌, 모동의 옥동서원, 청리의 지암재, 화서의 청계동 등을 중심으로 문학활동을 펼쳤다. 이들 장소는 그의 강학 혹은 소요의 현장이자 추억이 서린 곳이다. 특히 견일암은 그가 22세에 『사기』의 <백이전>, <임안서>, <유협> 등을 수없이 읽던 곳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주 일원은 정종로의 의식을 숙성시켰던 대표적인 공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Ⅲ. 정종로 문학의 공간 감성

문학작품에 있어 공간 감성은 주로 넷으로 구분된다. 이는 가능성 여부에 따라 ‘이상’과 ‘현실’, 행동성 여부에 따라 ‘이념’과 ‘실제’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진다. 도학 감성, 낭만 감성, 생활 감성, 사회 감성이 그것이다. 도학 감성과 낭만 감성이 이상에 입각하여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라면, 생활 감성과 사회 감성은 현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특수적이다. 또한 도학 감성과 사회 감성이 이념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데 비해, 낭만 감성과 생활 감성은 실제적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sup>21)</sup> 이들 공간 감성은 일정한 물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물질적 상상력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다.

정종로는 조선후기 영남을 대표하는 선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대해 蔡濟恭(樊巖, 1720-1799)은 정종로를 들어 “경학과 문장이 대단하여 山南의 第一”<sup>22)</sup>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를 방증하기에 족하다. 柳

20) 鄭宗魯, 『立齋集』 권3, <二十景外, 又有爛柯巖倚筇巖插花巖等, 亦皆當日命名者, 故雖無題詠傳後, 而聊賦其景以附之.>

21) 정우락, 「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감성의 유형」, 『영남학』 7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참조.

22) 『立齋年譜』 52세조, “右議政蔡濟恭曰, 今光陵參奉鄭宗魯, 經學文章蔚然, 山南第一

尋春(江臯, 1762-1834) 역시 “안자와 명도, 퇴계 세 선생의 도를 깊이 체득하였다.”<sup>23)</sup>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해 볼 때, 정종로는 당대에 이미 유학의 정수를 꿰뚫어 도학과 문학 양 방면에서 성공한 영남의 선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에게서 공간 감성은 어떻게 작동하였는가.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도학 감성에 대해서다. 도학 감성은 정종로 문학 세계의 본령에 해당한다. 그 스스로 30세를 전후하여 뜻을 새롭게 세우며 立齋라 자호하고, 이어 無適翁이라 하기도 했다.<sup>24)</sup> ‘입’은 바로 수양론에 기반한 聖學을 세운다는 것이고, ‘무적’은 바로 ‘敬’의 다른 이름이다. 정이가 제시한 ‘主一無適’의 ‘무적’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도학은 立志와 居敬에 기반한 것이라 하겠다. 이 때문에 문인 柳栻(敬甫, 1755-1822)은 정종로의 언행록에서 “뜻이 이미 확립되었더라도 미발시와 잠잘 때는 무엇으로 징험하겠는가? 이 또한 敬으로 한다. 대개 敬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뜻이 끊어지지 않는다.”<sup>25)</sup>라고 할 수 있었다. 다음 작품을 보자.

- ① 凝道遺謨炳至今    도를 응집한다는 가르침이 지금까지 빛나니  
 致存方復最靈心    치존해야 가장 영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네  
 欲知夫子專工處    선생께서 공부에 전념한 곳을 알려면  
 看取茅菴一寸陰    응암에서 일촌광음을 아낀 것을 보라<sup>26)</sup>

矣.”

23) 柳尋春, 『江臯集』 권16, <立齋鄭先生墓誌銘>, “先生, 嘗以顏子之學幾於聖人, 又嘗以明道天資似顏子, 每舉似學者, 而於退陶夫子則輒夢見之…此先生之學, 所以日造乎高明, 而其於三夫子之道, 深有所得焉者也.”

24) 정종로가 즐겨 읽었던 『心經附註』 권2 <大學誠意章>에는, “어떤 사람이, ‘막 뜻을 잡아서 지키고 있을 때 두 가지가 오히려 가슴속에서 서로 싸우면 어찌 해야 합니까’라고 하니, 南軒張氏가 ‘뜻을 잡아 지킨다는 것은 主一을 이르는 것이니, 만약 뜻을 잡아 지키고 있을 때 두 가지가 가슴속에서 서로 싸운다면 主一하지 못한 것이니, 이것은 立志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입지’와 ‘주일’의 상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25) 鄭宗魯, 『立齋別集』 권9, 「言行錄」, “志既立矣, 而於未發睡着時, 何以驗之? 是亦敬也, 蓋敬無間斷處, 卽志無間斷處也.”

② 虛明一鑑絕纖埃 허명한 거울에 티끌 하나 없으니  
萬象隨過洞照來 만상이 지날 때마다 환히 비추네  
不有源頭流活水 근원에서 흐르는 활수가 없었다면  
碧空那得箇中開 이 못에 푸른 하늘이 어찌 열리겠는가<sup>27)</sup>

위의 두 작품은 정종로가 고산 공간을 노래한 것이다. 즉 李象靖의 <高山雜詠>에 대하여 차운한 <敬次高山雜詠>의 일부로, 앞의 작품(①)은 <凝菴>, 뒤의 작품(②)은 <光影潭>이다. 이 두 작품 모두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중용장구』 27장에서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도가 응집되지 않는다.”<sup>28)</sup>라고 하면서, 致存, 즉 ‘格物致知’와 ‘存心養性’을 강조한다. 이러한 도학적 발언은 아래 시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주자가 마음을 방당에 비유하여 <관서유감>을 지었듯이, 그 역시 이 시의 운자를 그대로 활용하며 작품을 창작했다. 여기서 제시하는 티끌 하나 없는 허명한 거울은 마음, 바로 그것이다.<sup>29)</sup> 마음을 ‘虛靈不昧’로 인식하던 도학적 전통을 따른 것이다.

둘째, 낭만 감성에 대해서다. 정종로는 몇 차례의 여행과 사은숙배를 위해 서울에 갔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주에서 생활하였다. 이 때문에 상주라는 지역 공간은 그의 문학세계에 깊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고, 상주의 산수와 인물은 그의 작품을 숙성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상주의 아름다운 풍광은 그의 낭만 감성을 자극하면서 문학경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였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작가적 재능은 십분 발휘되었다, 도연명을 연상할 수 있는 전원에서의 한적한 삶은 정종로의 아취와 결합되면서 아름답게 묘사되었다. 다음 작품을 보자.

26) 鄭宗魯, 『立齋集』 권6, <敬次高山雜詠>

27) 鄭宗魯, 『立齋集』 권6, <敬次高山雜詠>

28) 『중용』 27장, “苟不至德, 至道不凝焉.”

29) 정우락,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觀書有感〉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참조.



① 明月寒梅樹 밝은 달 비치는 밤에 차가운 매화나무  
 當牕影亂斜 창가에 어리어 그림자 어지러이 비끼네  
 認得山鳥宿 알 수 있노니, 산새가 머물러 잠자면서  
 時動一枝花 때때로 매화나무 한 가지를 흔드는 줄<sup>30)</sup>

② 沙頭萬章蒼髯 모래사장 머리에 만 장 소나무 있고  
 湖上數點青螺 호숫가에는 몇 점 푸른 산이 있네  
 日暮漁舟渡急 해 지니 고기잡이배 물 건너기 급하고  
 月明菱歌唱多 달 밝으니 마름 노래 부름이 많다<sup>31)</sup>

앞의 것(①)은 상주 우산리 계정 공간으로 <溪亭月夜賞梅>(1762, 영조 38)라는 작품이고, 뒤의 것(②)은 상주 공검면의 검호[공검지] 공간으로 <劔湖泛舟>(1780, 정조 4)라는 작품이다. 정종로는 앞의 작품에서는 밝은 달, 매화, 산새, 흔들리는 매화 가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뒤의 작품에서는 모랫벌, 소나무, 호숫가, 푸른 산, 고기잡이배, 밝은 달, 노랫소리가 조화로운 서정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념에 경도될 수 있는 어떤 ‘도학’적 논리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에 대한 보편정서가 낭만적인 필치로 그려질 따름이라는 것이다.

셋째, 생활 감성에 대해서다. 생활의 범위는 대단히 넓다. 의식주와 같은 일상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治家 등의 가정 생활, 놀이 등의 여가 생활, 출사 등의 직업 생활, 치병 등의 사적 생활, 회합 등의 사회 생활, 강학 등의 학문 생활 등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선비 정종로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 가운데 그의 문학 활동과 결부시켜 보면, 독서와 강학, 여행과 회합은 그의 생활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가 상주에서 주로 활동하였지만, 여기서는 여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회합의 경우를 중심으로

30) 鄭宗魯, 『立齋集』 권1, <溪亭月夜賞梅>

31) 鄭宗魯, 『立齋集』 권1, <劔湖即景>

살펴보자.

- |           |   |
|-----------|---|
| ① 漆老藏修地   | 칠계 어른이 은거하며 공부하시던 곳                       |
| 聾淵蕭灑亭     | 농연에 티 없이 맑은 정자가 있네                        |
| 瀑將塵語絕     | 폭포는 속세의 말을 들리지 않게 하고                      |
| 巖戴屐痕青     | 바위는 다니시던 흔적을 이고서 푸르네                      |
| 仰面看雲岵     | 얼굴 들어 우러러 구름 뜬 산굴을 보고                     |
| 端襟坐水檻     | 옷깃 단정히 하고 물가 난간에 앉았네                      |
| 先生如復見     | 선생을 마치 다시 뵈는 듯하니                          |
| 明月上東屏     | 밝은 달이 동쪽 병풍 산에 뜨네 <sup>32)</sup>          |
|           |   |
| ② 自登澄閣頌騰謳 | 징청각에 오름으로부터 칭송의 노래 비등하고                   |
| 炯鑑南州燭盡幽   | 환한 거울이 남쪽 고을 구석구석을 다 밝혔네                  |
| 指顧保無違典事   | 지시함이 법전과 사례에 어긋남 없도록 보전하니                 |
| 右文從此績逾收   | 문을 숭상하는 업적 이로부터 갈수록 더 거두겠네 <sup>33)</sup> |

앞의 작품(①)은 팔공산 기슭의 농연정사를 배경으로 지은 것이고, 뒤의 작품(②)은 대구에서 향음주례를 행하고 나서 창작한 것이다. 정종로는 최홍원을 특별히 존경하여 40세(1778)가 되는 가을에 그를 찾아본 적이 있고, 1790년(정조 14)에는 최홍원의 정려가 조정으로부터 내려오자, 焚黃의 의례에 참여하여 존경과 사모함을 시로써 나타냈다. 당시 그는 최홍원의 강학공간인 농연정사를 심방한 후 시를 남기는데 앞의 작품(①)이 그것이다. 그는 여기서, 선생을 마치 다시 뵈는 듯하다고 했다. 뒤의 작품은 1807년(순조 7)에 달성부의 향음주례에서 賓으로 초대되어 성대한 행사를 치른 후 ‘천고의 성대한 예식을 눈으로 보았다’면서 칠언절구 18수를 지었다. 뒤의 작품(②)은 그 가운데 17번째 작품으로, 징청각을 들어 당시 방백이었던 尹光顔(1757-1815)의 문덕을 칭송한 것이다.

넷째, 사회 감성에 대해서다. 인간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선비들이 지니고 있었던

32) 鄭宗魯, 『立齋集』 권2, <聾淵精舍, 次諸同人韻>

33) 鄭宗魯, 『立齋集』 권4, <達城鄉飲禮後賦其事奉贈尹方伯 光顔>

유가적 출처의식 역시 이에 입각한 것이다. 사회적 宜와 不宜에 따라 出과 處를 선택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불의는 바로 사회적 부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럽게 비판정신과 결부된다. 정종로 또한, “허명이 세상에 넘치니 시기가 응당 이르고, 은총이 몸에 잘못 더해져 면함이 마땅히 좋겠네.”<sup>34)</sup>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온 벼슬을 몹시 부담스러워했다.<sup>35)</sup>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출처의식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공간 감성과 관련된 다음 작품을 보자.

- ① 峽開京路直    골짜기가 열리면 서울 길이 곧으니  
 此地設關當    여기에 관문을 설치함이 마땅하네  
 禁旅林空密    대궐 병사가 숲처럼 부질없이 조밀해도  
 生戎葦豈防    전쟁 일어나면 거룻배를 어찌 막을가  
 成阜兵易過    성고라도 병사가 쉽게 통과하고  
 潭毒敵還傷    담독산도 적들이 도리어 손상시켰네  
 古壘基猶在    오래된 성채 터가 여전히 남아 있어  
 雄圖憶濟王    웅대하게 도모했던 백제 왕을 추억하네<sup>36)</sup>
- ② 打麥仍除酒數瓶    보리타작하고 이어서 외상 술 몇 병 사 와서  
 槐陰環坐語村丁    해나무 그늘에 둘러앉아 담소하는 촌 장정들  
 且須及此登場飲    이렇듯 타작한 마당에 술 한잔 해야겠지만  
 明日輸官未必贏    내일 관가에 보내면 반드시 남지 않으리라<sup>37)</sup>

앞의 작품(①)은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에 위치한 城山山城, 일명 甄萱山城을 노래한 것이다. 정종로는 이 산성을 통해 백제를 상상하게 되는 데, 미련에서 “오래된 성채 터가 여전히 남아 있어, 웅대하게 도모했던 백제 왕을 추억하네”라 한 데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뒤의

34) 정종로, 『입재집』 권3, <遺憫>, “虛名溢世猜應至, 誤寵加身免合休.”

35) 정종로는 1797년(정조 21) 윤6월 1일에 谷城縣監으로 제수되었다가, 다시 康翎縣監으로 고쳐서 제수되었다.

36) 鄭宗魯, 『立齋集』 권3, <山城次南友韻>

37) 鄭宗魯, 『立齋集』 권1, <田家雜謠>

작품②은 전가의 보리타작을 노래한 것인바, 관가에 세금으로 보내고 남지 않는다면서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흉년을 탄식한 시에 차운한 <次荒歲歎韻>에서, “온 도의 여러 창고는 곡식 사들이지 않고 닫아, 봄철의 긴 해에 굶주림을 참으며 지내네. 이때 고을 진휼을 반드시 급히 해야 하니, 식량은 다하고 보리 익기 아득하니 어떻게 하나.”<sup>38)</sup>라고 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정종로는 이처럼 고달픈 농민의 삶을 사회적 시각에서 그려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종로의 문학에는 다양한 공간 상상력이 작동한다. 특정 사물을 통해 도학, 낭만, 생활, 사회 감성이 매우 다채롭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유형의 감성이 균형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낭만 감성에 의한 작품이 현저하게 많고, 사회 감성에 의한 작품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종로가 자연 속에서 살면서 그 자연과의 교감을 보편정서에 입각해 섬세한 감각으로 창작한 결과이며, 동시에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愚巖을 노래한 다음 작품에서 이러한 점이 제대로 읽힌다.

萬古默不動	오랜 세월 묵묵히 움직이지 않으니
無人測範圍	그 범위를 헤아려 아는 사람이 없네
形偏疑拱揖	구부정한 형체는 공읍을 하는가 싶고
像儼若裳衣	엄연한 형상은 의상을 입은 듯하여라
確爾當夷險	확고하게 쉬운 일 굳은 일 다 감당하고
渾然絕是非	혼연하게 세속의 시비를 끊었네
排闥山得力	물결을 밀쳐 넘어 산에서 얻은 힘이니
永免土崩歸	길이 흠으로 무너지게 뒤흔들 벗어났네 <sup>39)</sup>

우암은 상주의 우산리 우복 종가 앞쪽으로 흐르는 이안천 가에 서 있

38) 鄭宗魯, 『立齋集』 권4, <次荒歲歎韻>, “一路諸倉休糴閉, 九春長日忍飢消. 此時邑賑惟須急, 食盡其如麥熟遙.”

39) 鄭宗魯, 『立齋集』 권3, <盧子能啓心, 至, 滯雨山樓, 共賦愚巖.>

는 우뚝한 바위다. 정경세는 이 바위를 愚巖으로 명명하고 <愚巖>이라는 시를 지어, “훗날 나를 찾아오는 나그네 있다면, 산 아래 푸른 바위 그게 바로 난 줄 아시게.”<sup>40)</sup>라고 하면서 우암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또한 <愚巖說>을 지어 자신의 강한 절조를 드러내기도 했다.<sup>41)</sup> 이에 기반하여 정종로는 쉽고 어려운 일 모두를 감당하면서 세속의 시비를 끊고 있는 우암을 보았다. 그리고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강인한 정신을 감지했다. 미련의 ‘물결을 밀쳐냄이 산에서 얻은 힘’이라고 한 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종로의 공간 감성은 바로 이러한 강인한 선비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 IV. 정종로의 공간 구성 방식

정종로 문학에는 다양한 공간이 나타난다. 특정한 규칙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 공간을 포착하고 이를 작품화 한 경우가 있어 우선 주목된다. 본고의 제2장에서 제시한 <표1>에 보이는 한 수 내지 두 수로 되어 있는 작품이 대체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정종로 문학에는 공간에 대한 일정한 구성방식이 확인된다. 이는 주로 연작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네 가지의 패턴을 지닌다. 생활공간 속에 생성된 시, 여행의 과정에서 생성된 시, 특정 공간에 대한 집경시, 계류를 중심으로 한 구곡시가 그것이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 정종로의 공간 구성 방식을 따져보기로 하자.

첫째, 靜인 생활공간에서 생성된 작품이다. 정종로가 9세(1746) 되던 해 우산 본가로 돌아온 이후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니, 그에게 우산은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이다. 이 때문에 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보이는 사물은 낯선 것이 없었고,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오랜 벗들

40) 鄭經世, 『愚伏集』 권1, <愚巖>, “他年有客來相訪, 山下蒼巖是卽吾.”

41) 정경세의 <우암설>에 대해서는, 정우락, 『영남을 넘어,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예문서원, 2013, 74-84쪽에 자세하다.

이었다. 선조 정경세가 남겨준 전장을 가꾸며, 선조의 학문을 학문으로 하며 강한 자부심 또한 갖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溪亭, 水回洞, 對山樓, 愚山二十景, 愚山書院의 道存堂, 愚巖 등을 작품화한다. 특히 선조 정경세가 구체적인 공간을 정하고 이에 따른 작품 <우산이십경>을 남겼는데, 그 역시 이에 대한 차운시를 지었다. 그 첫째 수는 <書室>이다. 들어보기로 한다.

學遵經旨方無誤	학문은 경전의 뜻을 준수해야 잘못이 없고
理到心融始見功	이치는 마음에 무르녹아야 공효가 드러나네
珍重藏書遺訓意	진중한 장서에 교훈을 남기신 뜻이 있으니
後孫尤合體先公	후손은 더욱 선공을 체득해야 합당하리라 <sup>42)</sup>

정경세는 일찍이 <愚谷雜詠二十絶>을 전10경, 후10경으로 나누어 지은 바 있다. 전10경은 <書室>, <懷遠臺>, <五峯塘>, <五老臺>, <翔鳳臺>, <鰲柱石>, <羽化巖>, <御風臺>, <萬松洲>, <山影潭>이고, 후10경은 <溪亭>, <垂綸石>, <船巖>, <花漱>, <雲錦石>, <雙壁壇>, <青山村>, <畫圖巖>, <拱仙峯>, <水回洞>이다. 정종로는 위의 작품에서 선조 정경세가 남긴 서책을 중심으로 학문을 하며 이치를 밝혀가야 한다고 했다. 서실에 대한 합당한 생각이다. 그는 여기서 더욱 나아가, 20경 외에 당일 정경세가 명명한 <爛柯巖>, <倚筇巖>, <插花巖>을 다시 지어 선조의 정신을 잇고자 하였으며, 우산이라는 생활공간을 하나의 이상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둘째, 動的인 여행 과정에서 생성된 작품이다. 여행은 체험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이때 창작된 작품은 거주지 중심의 정적인 생활 공간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정종로는 이를 통해 仁智라는 유가적 이상을 체득하려고 했다. <樂山水說>을 지어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말의 참 의미를 밝힌 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sup>43)</sup> 그가 <無適公自叙>를 지어 상상으로나마 국내외

42) 鄭宗魯, 『立齋集』 권3, <敬次先祖愚山二十景韻·書室>

의 여러 명승지를 찬양하면서, 원유의 꿈을 펼쳤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sup>44)</sup> 특히 知己이자 사돈인 南漢朝(損齋, 1744-1809) 등과 함께한 인근의 산수 유람은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陽山洞口, 口占次朱子雲谷雜詠第一絕韻>, <夜遊巖>, <曦陽峯>, <陽山寺>, <白雲臺>, <仙遊洞>, <靈槎石>, <鸞笙瀨>, <玉舄臺>, <濯纓潭>, <觀瀾臺>, <洗心臺>, <詠歸巖>, <內外仙遊洞>, <龍遊洞>, <龍湫>, <仙遊洞卽景, 次雲谷第二絕韻>, <又疊>, <仙遊洞次宗伯韻>, <龍遊洞石形之詭怪…故反其意, 又作此詩奉寄>

② <將遊俗離, 文瑞先到, 共待杜陵諸益>(2), <步前韻詠卽事>, <用前韻促山行>, <清溪寺步南友韻>, <山城次南友韻>, <發清溪向俗離, 途中次前韻窮字>, <望俗離次宗伯韻>(2), <詠俗離次前窮字>, <五層殿>, <銅柱>, <鐵鑊>, <石槽>, <水晶峯>, <龜形巖>, <石門>, <天王峯>, <福泉寺>, <中獅庵聯句>, <文藏臺>(2), <金剛窟>(2)

①의 시편들은 1794년(정조 18) 지기 남한조, 그의 아우 남조백, 막내 아들 鄭象觀과 함께 陽山에서부터 內外 仙遊洞 및 巴串과 龍游洞 등의 승경을 유람하면서 지은 것이다. 이때 남한조가 용유동의 바위 형상이 기괴한 것을 들어 용이 노닐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곧 조화의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면서 이를 설파한 시 수십 구를 지어서 정종로에게 보이자, 정종로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장편의 시를 지었다.<sup>45)</sup> ②의 시편들은 1795년(정조 19) 역시 남한조 등과 속리산으로 여행하면서 창작한 것인데, 당시 냉천으로 가면서 남한조, 黃磻老(白下, 1766-1840), 黃莘老(懷窩, 1755-1792), 李秉運(俛齋, 1766-1841) 등과 연구를 짓고 산

43) 鄭宗魯, 『立齋別集』 권4, <樂山水說> 참조.

44) 鄭宗魯, 『立齋別集』 권4, <無適公自叙> 참조.

45) 鄭宗魯, 『立齋集』 권2, <龍遊洞石形之詭怪, 南宗伯以爲非龍遊所致, 乃造化自然, 作辨破詩累十句以示我, 其言固不爲無見, 而余意天地間物理無所不有, 亦難以一槩論, 故反其意, 又作此詩奉寄.>

수를 즐기면서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sup>46)</sup>

셋째, 点을 중심으로 한 집경시이다. 집경시는 팔경시가 대표적인데, 北宋 宋迪이 瀟湘江의 아름다운 경치를 팔경으로 집경한 이후 팔경시는 清代에 이르기까지 명승을 형용하는 하나의 전형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高麗 明宗代에 유입되어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시나 그림으로 유행하면서 자국화한다. 4경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20경 이상으로 늘어가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특정 사물을 중심으로 점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지명+서경’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 사물이다. 앞의 것이 전형이라면, 뒤의 것은 잡영의 형태를 띤 것이다. 정종로는 이 둘을 매우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작시한다. 앞의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社倉八景: 五夫墟烟, 考亭喬木, 崇山夕烽, 劔嶺返照, 賢坪牧笛, 道庵夜燈, 法川平沙, 書灘漁火
- ② 城山八景: 蘇堤嫩柳, 彭洲芳草, 橫院丹楓, 旗巘白雪, 玉峯朝雲, 煙郊午餽, 丹山夕照, 黃江夜月
- ③ 素履亭八景: 熊山晚霞, 伊水夜瀨, 映軒長松, 夾岸垂柳, 倒池躑躅, 出水芙蓉, 平郊農唱, 前路商歌
- ④ 瀟湘八景: 洞庭秋月, 瀟湘夜雨, 平沙落鴈, 江天暮雪, 遠浦歸帆, 漁村落照, 山市晴嵐, 煙寺暮鐘

정종로는 여기서 훨씬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집경시를 생산한다. <東巖亭二十景><sup>47)</sup> <愚山二十景><sup>48)</sup> <玉洞題詠><sup>49)</sup> <浣溪書院六詠><sup>50)</sup> 등

- 
- 46) 정종로는 1795년의 여행에서 숙리산 유람을 마치고 냉천으로 가면서 여러 벗들과 연구를 지었으나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를 못내 아쉬워하던 차에 황반로가 그 초고를 가지고 와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급하여 한 편을 마무리한다고 했다.
  - 47) 동암정 20경은 다음과 같다. 龜岵, 東屯, 西崦, 山泉齋, 養正齋, 獨梅園, 雙竹塢, 堽巖, 晚對巖, 香遠塘, 栗社, 菊砌, 柿林, 桃板, 柳堤, 梨亭, 望遠臺, 東川, 風詠臺, 岐山.
  - 48) 우산 20경은 다음과 같다. 書室, 懷遠臺, 五峯塘, 山影潭, 五老臺, 羽化巖, 御風臺, 鰲柱石, 翔鳳臺, 萬松洲, 溪亭, 垂綸石, 船巖, 花滋, 雙壁壇, 雲錦石, 青山村, 畫圖巖, 拱仙峯, 水回洞 정종로는 여기에 爛柯巖, 倚筇巖, 插花巖, 愚巖 등을 추가해서 도합 24경이 되도록 했다.



이 그것이다. 이들 연작시는 ‘龜岵’, ‘懷遠臺’, ‘甌露齋’, ‘養性堂’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물명을 점의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작품을 창작한다. 6경이나 20경처럼 경을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다. 또한 <竹君八景>은 대나무의 상태를 다각적으로 읊고 거기에 ‘팔경’을 붙이고 있어 특이하다. ‘春竹’, ‘夏竹’, ‘秋竹’, ‘冬竹’, ‘風竹’, ‘雨竹’, ‘雪竹’, ‘月竹’이 그것이다. 정종로 문학에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의 집경시는 그가 경물을 매우 세밀하게 살피고, 이에 따른 감성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선을 중심으로 한 구곡시이다. 구곡시는 주희의 <무이도가>에 기원한다. 이는 주자학이 우리나라로 전래되면서 무이산을 중심으로 주희가 꿈꾸었던 성리학적 산수관이 조선조 유학자들에게 그대로 이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선비들은 주자의 무이구곡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하였다. 구곡비평을 통해 주자의 <무이도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고, 구곡시가를 지어 주자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기도 했으며, 구곡원림을 조성하며 주자처럼 살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구곡도를 그려 무이산을 상상하거나 그 자신 혹은 선조가 설정한 구곡을 기념하며 구곡을 조선화하기도 했다.<sup>51)</sup> 정종로 역시 구곡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집에 무이도와 사적 시문 1권이 있으니 선조 문장공이 大邱府使로 계실 때 무이도는 화공에게 모사하게 하고 사적 시문은 서예가에게 쓰게 한 것이다. 구곡의 경치가 완전히 목전에 있는 듯하였다. 또 퇴도가 <무이도가>에 차운한 시와 당시 선조께서 쓴 발문이 모두 이 책 가운데 있었다. 내가 손으로 어루만지고 입으로 읊조리며 천 년이 멀게 여겨지지 않았다.<sup>52)</sup>

49) 옥동서원 제영은 다음과 같다. 蘊輝堂, 甌露齋, 琢章齋, 清越樓, 懷寶門, 玉峯, 玉溪, 神見岡, 方流渡, 鏘鳴灘, 虹氣橋, 沙磨汀, 石攻塢, 山玄壁, 水蒼巖, 開雲坪, 生煙谷, 比德村, 密理庵

50) 완계서원 6경은 다음과 같다. 景德祠, 養性堂, 居敬齋, 由義齋, 下學門, 上達樓

51) 정우락, 「구곡원림(九曲園林)의 양상과 경북 구곡의 문화사적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77, 한국유교학회, 2019 참조.

52) 鄭宗魯, 『立齋集』 권6, <家有武夷圖并事蹟詩文一卷, 乃先祖文莊公爲達城時, 使工摹

이 자료에서 보듯이 정종로는 선조 정경세로부터 전해지는 무이도와 무이산 사적, 그리고 이황의 무이도가 차운시 및 정경세의 발문 등을 보면서 무이산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주희의 무이도가를 차운하기도 했다. <敬次武夷權歌>가 바로 그것이다. 정종로는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가 이상정의 고산칠곡을 차운하기도 하고, 1797년(정조 21)에는 吳大益(1729-1803)이 설정하고 창작한 雲仙九曲을 차운하면서 <次雲巖吳侍郎大益 寄贈韻 並步其九曲十絕奉呈>이라는 시를 짓기도 했다. 운선구곡은 오대익이 단양에 水雲亭을 중창하고 설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구곡의 명칭은 大隱潭, 黃庭洞, 水雲亭, 鍊丹窟, 道光壁, 四仙臺, 舍人巖, 桃花潭, 雲仙洞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종로의 문학은 크게 네 가지 공간에 의해 구성된다. 우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공간과 여행 과정에서 만나는 여행공간을 우선 들 수 있다. 생활공간이 근거리의 정적인 공간이라면, 여행공간은 원거리의 동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경관을 중심으로 한 집경시와 무이구곡을 본받은 구곡시의 공간을 들 수 있다. 집경시는 특정 공간을 바탕으로 한 점이 중심이 되고, 구곡시는 선을 중심으로 계류 상에 나타난다. 다수의 작품이 연작시의 형태로 창작되는 바, 이것은 정종로 문학의 주요 특징을 이룬다. 우리는 여기서 정종로가 문학창작에 있어 활용했던 공간 구성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바로 동과 정, 점과 선을 적절하게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문학 형식은 연작시의 형태였던 것이다.

## V. 맺음말

본 연구는 정종로 문학에 등장하는 공간을 조사하여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도학과 문학 사이에

---

而使人書者也。九曲形勝宛如目擊，又退陶次權歌詩及當時跋語，并在其中，摩挲諷誦，不知千載之爲遠>

입각점을 두고 문학적 측면에 더욱 밀착시켜 정종로를 논의하고자 했다. 정종로의 시는 도합 1249수로 파악되는 바, 이 규모는 작자가 도학자이기 는 하지만 작가적 역량 역시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정종로의 시에 나타난 공간을 포착하여, 그가 이들 문학적 경관을 어떻게 작품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 공간의 문화공간화 방식을 두루 살폈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종로가 그의 문학을 통해 보여주었던 공간 구성 방식이 지닌 의미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본고를 요약하기로 한다. 정종로는 그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그의 선조들은 10세 동안 다섯 번을 옮겨 살지만 상주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우산을 중심으로 한 상주 지역을 주로 작품화하였다. 시제에 나타나는 공간은 342곳인데, 상주가 중심이 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았다. 여행을 통해 경상도의 안동이나 산청, 충청도의 제천, 한양 등으로 공간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중국의 武夷山이나 성주의 사창서당 등 직접 가보지 않고 상상에 의한 공간 감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종로의 공간 감성은 도학, 낭만, 생활, 사회 감성이 작동하면서 매우 다채로운 형상화 과정을 거친다. 이 네 가지 유형의 감성 가운데 낭만 감성에 의한 작품이 현저하게 많고, 사회 감성에 의한 작품은 드물게 나타난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그가 보인 일정한 한계이기도 하지만, 정종로가 성리학자 혹은 작가로서의 존재감을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 산수를 노닐면서 자연을 성리학적 감성으로 접근하는 도학 감성이 낭만 감성에 비해 적게 드러나는 것도 주목된다. 그의 작가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공간 구성 방식의 측면에서 정종로의 문학은 크게 넷으로 나누어진다. 거주지 우산이 중심이 된 정적인 생활 공간, 여행의 과정에서 만난 동적인 유람 공간, 점을 중심으로 한 집경시 공간, 선을 중심으로 한 구곡시 공간이 그것이다. 이러한 네 유형의 공간 구성은 정종로의 문학적 상상력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데, 주로 연작시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여

기서 정종로가 문학창작에서 활용하였던 공간의 구성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즉 정과 동, 점과 선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활용의 풍성함에서 우리는 정종로 문학의 공간 구성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다음으로 정종로가 문학을 통해 보여주었던 공간 구성 방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 전통적인 음양론이 깊숙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루 아는 것처럼, 음양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들은 한편으로 협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는데, 이를 통해 사물의 소장과 변전을 설명한다. 정종로 문학에 나타나는 공간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정과 동, 점과 선에 의한 공간 구성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음-정-점(우수)’, ‘양-동-선(기수)’<sup>53)</sup>이 서로 맞물리면서 그의 문학이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고 본다. 우수의 집경시와 기수의 구곡시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구성되고 있으며, 이것이 정을 기반으로 한 거주지 공간과 동을 기반으로 한 여행 공간이 서로 맞물리면서 강한 역동성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愚山誌』<sup>54)</sup>에서는 정경세가 우산 동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경시를 창작하자, 여기서 아홉 굵이를 설정하여 구곡시를 새롭게 만들기도 했다. 그 가운데 1곡 <水洞>은 다음과 같다.

地關名區境號仙	지상에 열린 이름난 구역을 선정이라 하니
絕奇光景畫難傳	그 빼어난 광경을 그려서 전하기 어려워라
蒼厓綠水同回轉	푸른 벼랑에 푸른 물이 함께 굽이도니
別是山中一洞天	산속에 별다른 하나의 동천이로다 <sup>55)</sup>

정경세를 비롯해서 鄭道應(無忝齋, 1618-1667), 정종로, 鄭象履(制庵,

53) 점과 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조 선비들의 문화공간 만들기,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197-210쪽에서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54) 『愚山誌』는 우복종가 구장본으로 필사본이다. 여기에는 우산서원 건립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로 구성된 『愚山書院誌』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록에는 <崇道祠敦事日錄>이 있다. 편집자는 鄭象履이다.

55) 鄭宗魯, 『立齋集』 권3, <敬次先祖愚山二十景韻·水回洞>

1774-1848) 등은 우산동천을 20경으로 나누어 읊은 것을 물을 거슬러 오르며 다시 9곡을 설정하여 景中曲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구곡은 위에서 제시한 <수회동>을 비롯하여, 2곡 <畫圖巖>, 3곡 <靑山村>, 4곡 <花激>, 5곡 <船巖>, 6곡 <垂綸石>, 7곡 <溪亭>, 8곡 <愚巖>, 9곡 <御風臺>이다. 이것은 정경세의 후10경을 중심으로 9곡을 설정한 것인데, 전10경에서는 御風臺 만을 선택하였고, 愚巖을 새롭게 삽입한 결과였다. 이로써 우암동천은 20경 가운데 9곡이 새롭게 설정되어 景中曲의 문화로 재창조되었던 것이다.

둘째, 정종로 문학의 공간 구성 방식에는 도통론이 깊숙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가에서의 도통론은 異端을 비판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립한다. 주자는 ‘遏人欲 存天理’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맹자와 韓愈, 北宋代 도학의 도통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도통의 계보를 새롭게 확정하였다. 이황은 <屏銘>, <聖賢道學淵源> 등의 저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 堯舜→禹湯→文·武王→周公→孔子→曾子→顏子→子思→孟子→周敦頤→程顥→程頤→朱子로 이어지는 학문적 내용을 강조하였다. 이를 인식하면서 정종로는 주자를 특별히 주목하고, 이황과 함께 선조 정경세, 스승 이상정이 도통선상에 있다고 파악하고 이들을 특별히 기렸다. 이러한 사정이 다음 자료에 잘 나타난다.

- ① 주희 관련: <敬次武夷精舍雜詠>(12수), <敬次雲谷二十六詠>(26수), <敬次雲谷雜詩十二首>(12수), <敬次武夷權歌十首>(10수), <家有武夷圖并事蹟詩文一卷 乃先祖文莊公爲達城時 使工摹而使人書者也 九曲形勝宛如目擊 又退陶次權歌詩及當時跋語 并在其中 摩挲諷誦 不知千載之爲遠 遂成此篇云>
- ② 이황 관련: <敬次陶山雜詠十八首>(18수), <二十六絕>(26수), <敬次老先生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絕韻>(16수)
- ③ 정경세 관련: <敬次先祖愚山二十景韻>(20수), <二十景外又有爛柯巖倚筇巖挿花巖等亦皆當日命名者故雖無題詠傳後而聊賦其景以附之>(3수),
- ④ 이상정 관련: <敬次高山雜詠>(9수), <十六絕>(16수), <七曲詩>(7수)

위의 자료에서 우리는 정종로의 생각을 바로 알 수 있다. 주희→이황→정경세→이상정으로 이어지는 도통론이 그것이다. 특히 주희와 이황의 도통문제에 대하여 그는 <家有武夷圖>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무이산이 멀리 남쪽 월에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누가 볼 수 있었던가”<sup>56)</sup>라고 하면서, “신령 언덕의 향기 자취가 완전히 어제 같은데, 보배 상자의 거문고에 화답하는 사람 적네. 외진 동방의 후학이 다만 사모함이 간절하니, 가서 따르고자 하나 말미암을 길이 없네. 그대는 보지 못했던가, 우리나라에도 하나의 무이산이 있으니, 그림 밖의 도산이 푸르게 비추고 있음을.”<sup>57)</sup>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무이산과 도산을 하나의 도통 선상에 놓고 본 것이다. 특히 도산을 우리나라의 무이산으로 생각한 것에서 그의 생각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정종로 문학에서 공간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감성과 구성 방식을 따져 보면, 음양론과 도통론이 깊게 작동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낭만 감성과 생활 감성을 중심으로, 정과 동이 맞물리고, 점과 선이 어울리면서 문학 공간은 직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종로가 도학뿐만 아니라 문학을 특별히 강조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양론이 문학에, 도통론이 도학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 역시 그가 도학과 문학을 일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조선후기 영남을 대표하는 선비 정종로의 문학적 상상력, 그 행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이 논문은 2021년 7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56) 鄭宗魯, 『立齋集』 권6, <家有武夷圖并事蹟詩文一卷, 乃先祖文莊公爲達城時, 使工摹而使人書者也. 九曲形勝宛如目擊, 又退陶次權歌詩及當時跋語, 并在其中, 摩挲諷誦, 不知千載之爲遠, 遂成此篇云.>, “武夷之山遠在南越中, 東土何人能見者.”

57) 鄭宗魯, 『立齋集』 권6, <家有武夷圖并事蹟詩文一卷, 乃先祖文莊公爲達城時, 使工摹而使人書者也. 九曲形勝宛如目擊, 又退陶次權歌詩及當時跋語, 并在其中, 摩挲諷誦, 不知千載之爲遠, 遂成此篇云.>, “靈皋芳躅宛如昨, 寶匣瑤徽和者寡. 偏方晚生慕徒切, 欲往從之末由也. 君不見! 吾東亦有一武夷, 畫外陶山碧相射.”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柳尋春, 『江臯集』

鄭經世, 『愚伏集』

程敏政, 『心經附註』

鄭宗魯, 『立齋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입재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 2. 논저

류진희, 「입재 정종로의 陶·杜와 주자시 수용양상」, 『연민학지』 28, 연민학회, 2017, 261-303쪽.

류진희, 「입재 정종로의 한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논문, 2017.

朴英鎬, 「立齋 鄭宗魯의 삶과 文學世界」,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 7-41쪽

이향배, 「立齋 鄭宗魯의 한시 연구」, 『퇴계학과유교문화』 50,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2, 97-132쪽.

정우락, 「九曲園林의 양상과 경북 구곡의 문화사적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77, 한국유교학회, 2019, 369-407쪽.

정우락, 「입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감성의 유형」, 『영남학』 7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7-56쪽.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177-217쪽.

정우락,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觀書有感〉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361-394쪽.

정우락, 『영남을 넘어,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예문서원, 2013.

황위주, 「『입재집(立齋集)』에 대하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입재집』 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Abstract

## The Space Sensibility and Composition Methods of Ipjae Jeong Jong-Ro's Literature

Jeong, Woo-lak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ways that Ipjae Jeong Jong-ro used spaces in his poems and wove the sensibility and composition methods of these spaces. Authors create literary works by moving from a space to another, which means that their space imagination is a main province of their literary inquiries. Jeong usually used the Sangju area around Woosan where he lived in his works, and the study mainly discussed it.

Jeong's sensibility of spaces underwent a very colorful embodiment process with moral, romance, living, and social sensibility in action. Of these four types of sensibility, romance holds overwhelming presence in his works with social sensibility found rarely in them. It reflects his certain limitations with his problematic consciousness of reality. It is also one of the ways that he revealed his presence as Neo-Confucian scholar or author most actively.

The study examined the sensibility and composition methods of spaces with a focus on spaces in his literature and found that the yin-yang theory and the Dotong theory had profound actions in it. In his works, literary spaces were woven with static and dynamic interlocking each other and with dots and lines mixing together with a focus on romance and living sensibility. It is an outcome of his special emphasis on literature as well as moral. The yin-yang theory meets



literature and the Dotong theory meets moral in his works, which was possible because he had a uniform idea of moral and literature.

**keywords :**

Ipjae Jeong Jong-ro, space sensibility, moral sensibility, romance sensibility, social sensibility, life sensibility, composition method, yin-yang theory, Dotong theory, dot and line

